

월 간

충현

3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 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3월 30일 발행
통권 제15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 새로 시작되는

특별집회에 붙어서 —

대학부와 청년부가 주최하는 특별집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3월 30일에 시작된다. 이 집회의 성격을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한 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극장과 요리집을 무너뜨리고 시작된 지 어언간 22년, 그 동안 본 교회가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 교단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현상적으로는 김 창인 목사님의 「은혜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10주년 때에 「천국 일군을 키우자」는 슬로건은 교육방향을 정립한 점에서 교육혁명을 가져왔으며, 그 후 서 만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보내면서 교회의 선교사명을 널리 깨닫게 하여 줌으로써 현재 선교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크게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부활절을 기하여 대학부와 청년부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될 특별집회는, 내적인 성령 폭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충현교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 중요성은 한 마디로 이것이 청년

중심의 운동이란 데 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청년 종교였으나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청년 부재 현상을 가져왔다. 그것은 주일 학교 교사가 부족이란 어려움을 가져왔고 모든 교회에서 일군 부족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충현교회만 하더라도 「한계집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던 것은, 앞에서 꿰고 일해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밖에서 방황한 데 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김 창인 목사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심으로, 앞으로 충현교회는 새 역사가 창조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이번에 시작되는 집회는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할까? 이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어야 하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성령운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충현의 비전인 「동남아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될 것이며 「민족복음화를 위한 센터」가 될 것이다.

앞으로 타오를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그리고 높이 타올라서 새 역사가 창조될 것을 다 같이 기도하자.

<주간>



목 차

<설교> 정 상우 목사	3
<기관소개> 남전도회	4
<해외선교> 현지보고(1, 2월)	5
특 집 / 부 활 절	
◇ 부활절에 붙어서 / 임 욕인	6
◇ 구약에 나타난 부활사상 / 윤 영탁	7
◇ 특별집회를 성령 폭발운동으로	8
<해설>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 / 김 차생	10
<컬럼> 내일을 위한 휴식 / 정 은표	11
<만평> 또 하나의 선물은? / 오 응기	5
<동기 수양회보고> 이 연호	12
<구역공과> 4월공과	13
<교회 뉴스>	14

3월의 행사

- 2 일 / 정기제직회
- 9 일 / 남전도회 월례회
- 16 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
- 16 일 / 여전도회 월례회
- 23 일 / 출기 성찬예식
- 23 일 / 구역권찰회 월례회
- 23 일 / 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 30 일 / 부활주일
- 30 일 / 오후 「특별집회」 시작(3시)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45분

주님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절대적인 사실

△ 성경 / 요한 20 장 19 - 23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불의를 밟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락방 문을 굳게 닫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다락방에 찾아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절대적 사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20절).

제자들이 너무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에는 메시야로서의 그의 구속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참 뜻(사 53:)을 모르는 원수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기뻐하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크게 실망하여 다락방에 숨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손의 못자리와 옆구리의 창자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본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신앙고백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제자들을 찾아 오셔서 평강을 비시며 몸의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절대적인 사실로 완성되었음을 확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롬 1: 4)과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임을 확증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 주님의 부활은 성도의 사명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26절; 마 28: 18).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몸의 상처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분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위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분부하셨습니다. 이 사명이야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은 상처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참 평안의 은혜를 누리신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손의 못자리와 옆구리의 창자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 충성하여야 할 이유를 제시(고후 5: 13-21)하는 것이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분부는 증인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금지와 용기를 주는 절대적인 권위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 주님의 부활은 오순절 성령충만에 대한 약속 실현의 확고한 근거가 되었습니다(22절).

제자들에게 사명을 분부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충만을 상징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다락방에서 약속하셨습니다(요 14: 16-17; 7-15).

그런데 성령충만에 대한 이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로 더욱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상징적인 행동으로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룩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충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임을 확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고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합시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을 기하여, 청년부와 대학부 주최로 여는 특별집회는 성령충만을 사모하여 모인다는 데 대단히 귀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불길에 이 민족을 불태워 복음화시키고 동남아를 비롯한 온 세계를 향한 복음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오늘의 세계를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교회와 한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상 우 사

택함받은 자라는 자각 속에

—80년대 아시아 선교센터의
중추적 역할이 소망—

조 현 명 장로

<유치부 부장>

우리 총현교회 남전도회는 1957년 1월 2일에 조직되었고 어느덧 18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현재 회원이 1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남전도회가 그간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향상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의 목표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고 하신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교인 전체가 천국 일꾼이 되도록 십자가 정병화에는 남전도회가 주체성을 가지고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을 고하는 그 반가운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마 4:23; 막 1:14; 눅 4:43),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며(마 24:14; 막 13:10), 제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를 널리 전파한 것을(롬 1:1)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업인 교로(마 28:18-20)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다(롬 1:14-17, 고전 9:16-17).

그러므로 말씀 증거의 범위는 에루살렘(시내전도)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국내전도)와 땅 끝까지(외국전도) 즉 세계적이어야 한다.

시내전도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개인전도와 전회원의 노방전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1972년 4월부터 특별전도인 파송전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국내전도에 있어서는 남전도회가 조직된 이듬해부터 개척교회를 세웠으며, 시내 성북구 정릉동 동암교회,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 삼리교회, 경기도 고양군 증면 장항오리교회, 시내 성동구 마장동 동현교회 등 4개척의 개척교회는 완전 자립하여 부흥 발전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군 새마을교회(나원자촌)를 1968년 2월부터 보조하기 시작하여 1969년 3월 교회 건축보조까지 하였다. 1973년 1월부터 개척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마사리 장락교회와 1974년 3월부터 개척한 시내 신흠동 낙현교회는 현재 계속 보조 중에 있다.

전도부 주위로 신앙강좌, 부흥강연회의 명칭으로 부흥회를 가져오던 중 1973년부터 심령부흥회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남전도회의 지닌 소임을 완수함의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회지 아가페(Agape) 창간호를 1966년 6월 5일

에 발간하고 이 회지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두텁게 하며 피차 신앙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서를 통한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고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란 표어를 내 놓고 아가페 마아크(Mark)를 만든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

아가페 제 2호는 남전도회 창립 제10주년 기념호로 발행하였으며, 제 3호에는 남전도회 역대 회장단을 모시고 「남전도회의 부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좌담회를 가졌고 질적향상(18개항), 숫적부흥(9개항) 및 장기계획(27개항)에 대하여 토의한 바 있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조치표를 만들고 1차,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본 것도 지금부터 7년전 1968년 3월 17일의 일이었다.

아가페 제 4호에는 6월을 「총현교회 전도의 달」로 정한 내용이 실려 있으며, 이것은 총현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전도회에 가입한다는 기쁨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복음전파운동에 모두 참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남전도회 숫적부흥의 하나로 「남전도회 가입권유문」을 처음 발행한 것은 1968년 2월 4일이었다.

외국전도에 있어서는 이미 본 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차후 계속되는 일본, 동남아 각지 선교사 파견에 있어 우리 남전도회에서는 앞으로의 비전(Vision)을 창립 20주년 아가페 기념호에 게재해야 할 것이나 먼저 남전도회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국내, 해외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주일학교 각부 발전의 뒷받침을 하여야 하며, 회칙의 변경이 있어야 하겠다. 지금의 섬외부는 현신예배 강사 초청과 야외예배를 주관하는 Public Relations Department라 하겠으나 해외문헌 소개, 외국교회의 움직임, 외국주교의 각부 운영방식 등을 연구·조사·소개를 겸하는 International and Home Department로 사무분장이 바뀌어야 하겠다.

그리고 자육부에서는 각 회원에게 성경의 여러 부분을 분담시켜 연구케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동력을 가지도록 하며, 각자를 사제의 권위자로 만들어 총현 십자가 정병들의 개병(皆兵)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제부에서 1974년도부터 실시하는 지교회 또는 「무의촌 진료」봉사는 전도의 길을 더 넓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 총현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1983년도까지 「80년대 아시아 선교센터」가 됨에 있어, 우리 남전도회가 그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주교 각부의 전도사업의 통솔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힘든 전도

김 혁 민

“철수야!” “누구니? 들어와.”

“응, 난네 너 교회 잘 생각 없니?”

“응, 교회가서 뭐하니?”

“교회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착한 사람이 되거든. 그리고 천당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당 저쪽이 어디 있니? 난 교회 잘 생각 없다. 너나 예배 많이 해서 천당에나 가라. 이 예수쟁이야.”

나는 힘 없는 발걸음으로 혼자서 교회로 갔다. 예배 후 집에서 꼼꼼히 생각해 보니 철수를 교회에 꼭 다니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철수네 집으로 가서 불렀다.

철수는 창문을 반쯤 열고 서는, “왜 그래?”

“나 좋은 데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

나는 철수를 데리고 교회로 갔다. 말을 주고 받는데 동안에 어느덧 교회 문앞까지 왔다.

“아니, 여기 교회 아냐?” 철수는 자기가 속았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갈 기색이었다.

“아니, 여기 볼 일이 있어서 그래. 여기 잠깐만 들렀다 가자.”

그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따라 들어 왔다. 그 때는 마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여기 잠깐 앉아 있자.”

철수는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다가 앉았다. 약 10분이 흘렀다. 철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나는 철수를 시험해 보려고,

“야, 우리 좋은 데로 가자.”

“밤이 늦었는데 여기서 이야기나 듣자.”

철수는 계면쩍은 듯이 병긋 웃었다. 그 후 철수와 나는 추우나 더우나 손목을 잡고 함께 교회에 다닌다.

<초등부 6학년>

<충현만평>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명을 받아 세계를 향한 큰 뜻을 품고 진전하는 선교의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미약한 동역자와 정글의 영혼들을 위하여 후방지원에 나선 증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할렐루야/자카르타

선교사 서 만 수

※오늘도 이교도의 위협과 찌는 듯한 정글의 무더위 속에서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복음전파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는 몇일 전 1월, 2월 보고서를 해외복음선교회 앞으로 보내왔는데 그중 몇가지만 간추려 성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다.

□ 감단 순회

1월 12일 서부 자바교단 산하 교회인 자카르타의 살롱교회 주일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 교회는 1968년 회교도들의 방화로 전소되고 자카르타 특별시장이 배려해 준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짓고 지금은 300여명의 교인을 가진 큰 교회로 발전되고 있다.

□ 감사헌금을 성경보급에

본 선교부 산하 한인교회의 추수감사헌금을 정글인들에게 성경책을 보급하는데 쓰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수는 주평균 40여명(어린이 포함)이다.

□ 한인학교 유치부 졸업식

본 선교부 산하 한인학교 유치부 제 1회 졸업식이 지난 2월 2일 임마누엘 교회당에서 거행되었는데 졸업생은 5명이었다.

□ 선교관 건립대지 계속 물색중

본 선교회 선교관 건립을 위하여 우리의 예산에 맞는 대지를 찾기까지 계속 물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중에는 24개처나 답사하였으나 가격의 불균형으로 결정하지 못하였다.

■ 해외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 ■

- ◇ 현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일본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선교회원 증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선교비용과 기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선교회원 서로가 회원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합니다.
- ◇ 내가 해외선교에 직접 쓰임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 ◇ 앞으로 해외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둠과 습기에 찬 저저운 암굴로 내려가고 있었다. 기나긴 암굴 속으로 들어갈 때 실낱같은 안내자의 불빛을 따라 허둥대며 들어가다가 나는 그만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발루리에 걸어 채이는 바윗돌이 습기로 미끄럽고 눈앞은 캄캄해서 더 걸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석식한 이들은 안으로 안으로 향했다. 600미터만 가면 기묘하게 생긴 「거북바위」가 있다는 것이며 그 돌레를 한 바퀴 돌면 오래 산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전설이야 있거나 말거나 나는 어서 속히 그 습기찬 암굴을 빠져나오고만 싶었다. 지하 40미터 내려간 지점으로부터 겨우 300미터를 더 들어가다가 돌아서고야 말았던 것이다. 빛 없는 암굴의 순간은 영원한 형벌의 계속만 같았다.

들어온 입구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왔다.

“아아, 저기 빛줄기가 있다. 지상 입구에 빛줄기가 보인다.”

암굴 속을 향해서 더듬어 들어갈 때와는 달리 한발자국 한발자국 배어 나올 때마다 지상 입구를 통해 비치는 그 빛줄기의 길과 폭은 증대된다.

“저거다. 바로 저거야……”

내 입에서는 노래가 터져나오고 나의 영혼은 개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저거다. 소생이다. 부활이다. 승리다. 환희다. 내 영혼이 온통 입어……”

나의 심신은 절망에서 죽음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실감이었다.

지난 여름 제주도 만장굴에서 겪은 체험의 일단이다.

그 누구도 살아 가면서 암흑과 전망을 겪는 수가 있을 것이다. 어둠과 저저움을 겪는 암굴속 같은 시간과 공간의 체험을 맛볼 것이다. 넘어지며 절규하며 신음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때 이런 공간없는 탄탄대로의 인생이란 피조물에겐 일찌기 거의 없었으며, 앞으로 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 운명, 어쩔 수 없는 함정이다. 죽음이다. 눈뜨고 죽음을 겪어야 하는 고비 고비의 비극과 환난, 그리고 종국에는 육체가 사멸에 이르는... 공포와 불안은 이 뿌리깊은 불가피

□……“저거다. 바로 저거야……”

내 입에서는 노래가 터져나오고 나의 영혼은 개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저거다. 소생이다. 부활이다. 승리다. 환희다. 내 영혼이 온통 입어……”

나의 심신은 절망에서 죽음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실감이었다. □

부활절에 불어



임 옥 인

〈작가·전대교수·서울YWCA회장〉

이다.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신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누으셨던 빈 들무덤에 돌을 대고 누워 본 일이 있다면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 하겠다.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증거물이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메시지처럼 가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소망스러운 것이 더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소식과 그 소식을 확신하고 그 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또한 같은 길이 열려 있다는 길이 여기 있었던 것이다.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발견한 마리아처럼 이 새벽에 나는 이 원고를 쓰면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깃가에는 잔잔한 음성, 마음 속에는 신비한 유열이 흘러 넘친다.

새벽에 만난 부활의 주님! 종일 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순간적으로라도 암굴을 느끼면 곧 빛으로 이끄신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생명의 운동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약속하신다. 이 소망의 약속을 확신함이 없는 믿음은 방황의 언저리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사실이다.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불행한 일이다. 그 불행은 일시적인 것도 적은 것도 아니며, 삶의 손실이며 영원한 상처이다.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자취를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들을 들으며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하리라.

크리스찬의 특전과 행복은 부활에 집약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0-58절의 승리의 서한에서 이기는 자의 소리를 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자. 소유중 가장 귀하고 영원한 소유는 그 새벽의 사실이며 소식이다.

할렐루야! 나의 심령에 빛줄기가 드리운다.

의 종말의식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있었다.

암굴의 어둠을 살라먹는 빛이 있는 것처럼, 죽음의 저쪽에 부활의 새벽, 그 여명의 빛이 있었던 것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사상



윤 영 탁 전도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만에 부활 하셨다는 메시지는 신약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부활의 정신에 근거해서 세워졌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우리의 신앙도 부활의 사상을 기초로 해야 참된 신앙일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의 사상은 신약성경에 문맥과 낱말(명사: 아나스타시스, 동사: 아니스테미)을 통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부활의 사상이 구약성경에도 나타나 있는가? 만일 나타나 있다면 신약성경에 비해 어느 정도

나 되는가?

신약성경의 경우와는 아주 판판으로, 구약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많지 못하다. “부활”이란 명사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다만 동사들로서 몇번 표현되었을 뿐이다. 신약성경에 핵심인 부활의 사상이 어찌해서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드물게 나타났는가? 독자는 의아해 할 것이다.

비평가들 역시 이 사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는 해석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부활의 사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단 12:2)에 나타났으며 이방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구약성경에는 부활의 사상이 없다고 주장한 학자(모빙겔)도 있다. 이들의 주장이 그릇됨은 다 음의 몇가지 이유를 들어 분명해진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가 바벨론과 애굽의 종교와 다른 점은 마치 요단강의 흐름의 방향이 유프라테스강과 나일강의 흐름의 방향과 다를 수 있다. 유프라테스강은 서쪽으로 흐르나 나일강은 남북쪽으로 흐르고 있나 요단강은 북남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바벨론의 탐무즈(겔 8:14 참조) 제식(祭式)은 초목의 신인 탐무즈가 봄에는 여신(女神)이쉬탈에 의하여 하계(下界)로부터 되살아온다고 하는 자연숭배에서 유래한다. 애굽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은 하늘로, 시체는 땅으로!」(Pyramid Texts 474a)라고 한 것은 육체적 부활을 말함이 아니다.

둘째로, 바벨론 포로 전의 성도들이 부활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신약성경이 증명해 준다. 히 11:19에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준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불신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지 아니라」(마 22:32 하)라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출 3:6을 인용하시었다.

셋째로, 부활에 대한 성취가 적은 이들이 부활의 사상을 부정하거나 의심할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

그러면 왜 구약성경에는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는 종교적 위험성

때문이라고 한다. (모리스, 이스톤) 확인하면, 바벨론이나 애굽에 사이비 부활론이 있었으므로 이에 미혹될 우려가 있었던 까닭이었는데, 이러한 위험이 적어졌던 구약시대 이후의 중간시대에는 이 사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절진적 계시에 의해 이렇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론). 즉 구약시대로부터 절진적으로 계시되어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온전히 나타냄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 부활의 사상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과 그 성취들이 적은 이유를 위에 기술했으니 이제 그 대표적 성취들에 대해서 생각할 이 있을 것이다.

(1) 시 49:15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 “영접하시리니”라고 한 말씀은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 “이끄신다”(창 2:15), “데려가신다”(창 5:24) 또 “취하신다”(왕하 2:3, 5)라고 표현되어 있다. “구속하신다”는 단어는 “속량하신다”(신 7:8) 또는 “대속하신다”(출 13:13)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어진다. 월론에는 “이러므로”라는 말씀이 본질의 앞에 놓여 있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욥(9:25-27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 보기를 의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26절과 27절 상반절의 “보리라”함은 주로 계시나 환상을 볼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27절 하반절의 “보리라”라고 함은 육안으로 사물을 볼 때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귀결은 분명히 욥이 육체의 부활을 말한 것으로서, 사후에 하나님을 뵈게됨에 있어서 육체가 없는 영으로가 아니고 부활된 몸으로 뵈는 것을 뜻한다.

(3) 사 26: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더러는 깨어 노래하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 “일어나리이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회당장의 열

두살된 딸을 죽음에서 일으킨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막 5:41)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굼”(아람어)은 본문의 “일어나리라”와 같은 단어이다. “빛난 이슬”은 초목을 소생하게 하며 생기를 주는 새벽이슬(시 110:3참조)을 가르키며 무덤속에 있는자가 이와같이 부활한 것을 보여준다.

(4) 단 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한 귀절은 구약성경에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욥 3:13, 시 13:3, 렘 51:39, 요 11:11, 행 7:60) 특히 고전 15:20과 살전 4:14에는 본문말씀과 같이 부활을 잠에서 깨는 것과 비유했다. 물론 여기 “땅의 티끌”은 무덤을 가르킨다. “이”라고함은 죽은 자들전체를 말해야 아니요, 다니엘이 말하는 환난기간에 죽은 자들을 지적함이다. 이 귀절이 죽은자 전체를 가르킨다고 하는 학자들은 “모든”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Young the prophecy of Daniel p. 256참조). 본문에 비로시 선한자와 악한 자가 모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위에서 열거한 성경의에도 겔 37:1-14, 왕하 4:32, 13:21 등등 부활의 사상을 나타내는 귀절들이 있다. (지면 관계상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였다(창 2:17, 욥 14:5, 전 9:10, 욥 7:9-10, 16:22, 시 6:5). 유대인도 모세의 죽음은 슬퍼할 때에 “모세가 죽었으니 누가 죽지 않으랴?”라고 하였다.

옛 성도들은 죽음이 영육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죽음으로부터의 육체적 부활과 영생을 믿었음으로 꾀박을 이기며, 순교도 하며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 육체적 부활의 사상은 중한 시대에도 나타나 있으며(마카비 2서 12:43이하), 그 후에 유대주의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부활이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세에 분깃이 없다”(미쉬나 산헤드린 10:1)고 부활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집회」를

성령 독발 운동으로

- ☐ 부활절을 맞으면서 「특별집회」를 갖는..... ☐
- ☐다. 이 집회를 통하여 1975년도 부활절은..... ☐
- ☐우리의 내면에서 잠자던 심령이 부활하고..... ☐
- ☐나태와 무기력속에 있던 교회가 부활하는..... ☐
-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
- ☐바라면서 당회장을 모시고 열렸던 특별집..... ☐
- ☐회협의회 내용을 정리하였다. ☐

■ 특별집회를 갖게 된 동기 및 목적은?

세상이 점점 작각하여지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다. 율리·도덕이 타락한 지는 옛날이고 사회정의도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새로운 정의를 구현해야 할 크리스찬들도 자신들도 모르게 부정과 타협하고 정당화된 불의와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모래알과 같이 찰갈려져 가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이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했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왔단 말인가? 우리 스스로를 가차없이 비판하며 돌아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야말로 먹느냐, 먹히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신앙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허리를 바짝 둥기고 우리의 갈질을 달려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특별집회를 열게 된 첫번째 동기는 이와같이 마지막 배를 당하여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한 신앙의 비상계엄령인 것이다.

한초가 아까운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보다 크리스찬답게 힘있고 능력있어 활성화는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는 간절하고 긴박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며 둘째로는 우리 교단의 폐쇄적이고 바리새적이다 시피한 것을 개방하여 우리교회의 청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키우고자 함에 있다.

「천국 일꾼을 키우자」란 표어 아래 우리 교회는 남달리 교육에 힘을 쏟아왔다. 이제 각 부서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좀더 넓은 기회를 주어 앞으로 우리 교회·사회·국가에 이같은 젊은이들이 어깨를 펴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명실공히 천국 일꾼으로 자라도록 훈련을 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세계로는 영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영적인 육구불만 상태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데 있다.

영적으로 피동단계·체험단계·분별단계의 세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피동단계에서 체험단계로 체험단계에서 분별단계로 한단계씩 끌어올려 영적 성장을 기하려는 데 또한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영적인 기갈상태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3가지 목표는 공히 「일꾼을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며, 성령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정병을, 기드온의 300의 군사를 키우고자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 그러면 이와같이 「일꾼을 키우기」위해 교육적인 면, 영적인 면의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앞으로의 특별집회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한마디로 「예수혁명」 「성령독발의 운동」이다. 부패한 교권주의·

바리새적인 의식, 인본주의적 편리주의가 교회를 상징하다시피 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 섭리가 있음을 의심치 않고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절감하고 있다. 게다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이 시작된다는 점은 이 운동이 「청년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청년운동」이란 「젊어지기 위한 운동」 「청년이 되기 위한 운동」으로 우리의 교회가, 온 교인이 청년과 같이 패기있고, 열심있고, 활력을 가지고 젊어지는 교회로 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집회는 대학부·청년부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모이지만 이것은 전교회적으로 퍼져 이 특별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온 남녀 노소가 한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한국의 미스바 운동」, 「한국의 초대교회 운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남아의 안디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특별집회를 어떠한 프로그램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특별집회 운영은 대학부에서 7명<신성종강도사, 최석주장로, 홍중섭장로, 정홍식집사, 박창균, 윤완철, 최병식>, 청년부에서 7명<정상우목사, 송순일장로, 이 옥집사, 권석기, 노문환, 이형수, 김 인>등으로 구성된 「특별집회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정상우 목사를 의장으로 한 이 협의회는 월 1회 정기 월례회를 모여 프로그램과 진행사항을 결정할 것이다.

1차로 모였던 협의회에서 결정된 기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와 기도는 원칙적으로 대학부 청년부회원을 한다.
- ② 말씀은 당분간 김창인 목사가 주시며 유고시 정상우목사·신성종강도사가 담당한다.
- ③ 간중순서를 갖는다.
- ④ 찬송 인도자를 특별히 정하며 찬송은 인도자에 따라 자유스런 형태로 부른다.
- ⑤ 헌금은 헌금함을 준비하여 출입시 자유로 헌금하도록 한다.
- ⑥ 헌금관리 및 안내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1개월씩 교대로 맡는다.

⑦ 집회는 매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갖는다.

⑧ 집회는 축도로 마친다.

이상 정해진 사항들을 볼 때 현재 예배의 순서와 별 차이가 없으나 모든 순서의 진행을 대학부·청년부 회원이 담당한다는 점과 특별히 찬송 인도자를 둔 점, 간중순서도 가진 점등이 특이하다.

특히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찬송과 기도는 맡겨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 특별집회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로 대학부의 성경공부문제, 정(情)적인 면이 강조되어 대학부 교육방침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둘째로 청년부는 오우에 하던 전리활동이 오전으로 옮겨짐에 따라 주일대예배는 1부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로 이제까지 본당에서 오후에 진행하여 오던 주교 각부의 큰 행사를 앞으로는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시간에는 소음관계로 다른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과 넷째로는 앞으로 특별집회를 대예배보다 더 중시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특별집회 후 대학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활동을 벌임으로 더 큰 효과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시행상에 차질도 없지 않겠지만 이와같이 특별집회를 계획하고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하에 성령님의 인도로 시작된 것을 믿고 또 이루실 것을 믿기에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오늘 시작하는 이 특별집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특별집회로 말미암아 실제로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성령충만한 교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 교회에 큰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형수>



WCC적 에큐메니칼운동은 무엇인가?

— <김 차 생 집사> —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는 WCC는 왜 보수교회와 복...◇
 ◇...음적인 교회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
 ◇...고 있는가? WCC라는 말을 종종 듣고...◇
 ◇...보아도 그에 대한 확실한 내막을 잘 모르...◇
 ◇...고 있는 평신도들을 위하여 가급적 쉽고...◇
 ◇...도 간략하게 WCC의 내막을 본란에서 소...◇
 ◇...개하여 보고저 한다...◇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약자이며 우리 말로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부른다. 이 WCC는 1948년 화란 암스텔담에서 발족된 후 오늘에 이르러는 UN 총회의 부서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4년마다 세계대회가 모이는데 그때마다 논의되는 모든 주제는 「교회통일」문제다.

WCC적 에큐메니칼(Ecumenical)에 의하면 교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수락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 알아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정치, 지리, 언어 및 사회적인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교파가 생겨났으니 이러한 인위적 교파분립은 교회를 비교회화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하나로 되는 것은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도 WCC는 세계교회 일치 형성에 주력을 나하고 있다.

그런데 왜 WCC는 보수교회와 복음적인 교회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가?

1.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간단히 말해서 성경을 고등비평하여 예수의 동정녀 탄생, 속죄, 부활, 재림, 이적 등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며 어떻게 믿든지 어떤 교리를 주장하든지 자유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해석, 선택, 교육, 발표 등의 자유도 또한 주장한다. 이처럼 WCC의 신앙적 기초는 정치, 경제, 사회 기타 세속적인 문제에 치중하며 교회가 저야 할 영혼구원의 사명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WCC에 복음적인 신학을 가진 교파나 교인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비교도 안될 정도로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자유주의적이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놓았을 뿐 아니라 불신앙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2. 에큐메니칼 운동은 단일교회를 목표로하는 혼합주의이다.

처음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은 모든 교회와 종교를 합병하여 단일종교 형성에 목표를 두었는데 이로 인한 과오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예를 들면 에큐메니칼 지

도자들이 주최한 1955년 6월 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우궁전에서는 불교·유교·바하이교·모하멧교·유대교·이슬람교·힌두교·회교회·기독교 등이 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세계의 희망이라 하여 기독교의 대동단결을 부르짖었다.

이 모임은 UN 창설 10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개최되었는데 평화를 위한 기도회의 집회였으며 약 1만 5천명이 참석하였다. 단상에는 여러가지 다른 종교의 대표자들이 앉아 있었으며 사회는 당시 WCC의 국제분과위원장장이었던 놀드 박사(D. Fredrick Nolde, D.D)가 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자리에서 있었던 교독문 낭독에 있어 참석한 각종 종교의 신앙에서 발해하여 교독하고 서로 손을 잡고 각각 자기들의 잠신에게 기도나 염불을 하였다.

2. WCC는 사회참여만을 고조하며 옹공적이다.

교회가 또 크리스찬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자체가 결코 잘못이 아니라 다만 WCC가 거기에만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고 사회참여 문제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용어들로 표현되어 다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 2회 WCC대회가 미국 에반스톤에서 모였을 때 공산주의 국가에서 5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그 중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로마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산당원으로 공산주의 평화운동의 공로훈장을 받았고 구라파에서 공산주의 대변자로 널리 알려진 자다.

제 1회 WCC대회에서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씨는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연설을 한 후에 이어서 정반대로 교회는 공산주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역시 제 2차 WCC대회 때 서방문명은 멸망상태에 있으며 공산주의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여 정통으로 자라난 본질적인 운동이며 결국은 모든 국가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였다. 항가리의 피이터는 공산주의 정치자금을 받는 자이며 페루도 역시 공산주의 앞잡이인데 각각 WCC의 중앙위원으로 피선되어 공산주의 대변자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3회 WCC대회가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되었을 때에는 쓰련에서 직접 16인의 대표가 와서 한층 더 공산주의를 선전한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UN도 공산주의의 대표를 받는데 WCC는 종교적 UN이니 공산주의의 대표를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한다.

4. WCC로 인하여 한국 장로교회는 분열되었다.

1959년 한국의 대한 장로교회 교단이 분열되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WCC에서 탈퇴하여야 한다는 측과 WCC는 단일교회나 옹공주의자가 아니라 세계교회

<11페이지에 계속>

보다 더 착한 자를 위하여

파 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명예와 부유함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오 관육부는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나는 증오를 가지는 이름을 구하여 멸지는 않겠나이다. 모든 제물보화를 원한다 해도 내자신이 나의 외로운 방이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자 원하옵나이다. 영원한 정의를 알 수 있는 감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온화한 정과 열심으로 가득찬 마음을 지니게 하옵시고 모든 어두움을 비취게 하는 신앙의 인간답게 인도하옵소서.

인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내려 주옵소서. 장님같이 더듬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와 비천한 자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자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왕국을 찾기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멘—

*파커(Theoclore Parker; 1810~1860)—파커는 미국 유니테리안교회의 목사요 뉴잉글랜드의 개혁자요 실증주의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전쟁과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이 기도는 보다 높은 윤리적인 안목을 구하는 소박한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10페이지에서〉

협단체 이므로 세계 각국의 교회와 유대를 가지면서 오늘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는 계속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측이 서로 맞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WCC 반대 교회는 합동측으로 모이고 WCC에 가입하여 계속 유대를 맺고 있는 교회는 통합측(칼측이라고도 부른다)으로 모이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WCC에 가입한 교단이 예수교장로회(통합)·기독교장로회(기장)·감리교·복음교회·구세군성공회 등이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선교사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들이다.

주로 보수주의 교회들은 WCC가 교리적 무과주의에 의한 연합정신을 고조함에 대하여 성경적이라고 하지 않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 예수를 반대하는 교파를 WCC는 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교회의 통일과 연합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WCC적 연합운동에 반대하는 것이다(고후 6:14-18).

〈고등부 교사〉

칼럼

내일을 위한 휴식

정 은 표

소매끝에 스치는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담밀 양지바른 곳에 새싹이 움돋는 봄이 오면 산골짜기의 잔설이 녹아내리듯 겨우내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봄볕이 희어져 불타오르듯 산마루의 진달래꽃이 붉게 타오르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나도 배를 지어 산과 들을 누빈다.

계절감각을 확인하려는 이같은 봄나들이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새벽부터 역에 모인다, 버스를 대절한다며 더욱 극성스럽고 소란스럽기 마련인데 이는 일년 내내 조화(造化)와 같은 도심(都心)의 빌딩 속에서 지내는 도시인들에게는 자연의 품에 안기고픈 인간본연의 자연스러운 욕구인지도 모른다. 이같은 흙내음, 풀내음을 사모하는 현대인의 기갈증에 이제는 그 종류와 수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갖가지 관광회사들이 더욱 부채질을 하고 나선다.

언제부터 우리사회에도 폐저 봄이 일어 돈주고 산 구경하고, 돈주고 낚시질하고, 돈주고 물에 들어가 야만 되게 되었는지 몰라도 수없는 현대판 봄이 걸선달들이 버젓이 영업허가를 얻어 성업중인 현실을 사회적 발전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창조된 자연을 파괴함으로 스스로를 문명의 우리 안에 가두어버린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보아야 할지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실이야 어떻든 현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휴식이 예전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건전한 노동 후의 건전한 휴식은 새로운 노동에 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간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보다도 먼저 옛새는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하고 이태되는 날은 여호와와 안식일로 기억하여 일손을 놓고 육체의 피로를 풀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간들이 복받는 날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된다.

즉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휴식이란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지켜질 때 인간에게 대단히 유익하며 복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새로운 일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나 새로운 일에 착수할 수 없도록 이끄는 파탄의 저류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은 산과 들을 달린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이 우리의 영광을 도리어 피로하게 하거나 낭비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도 온갖 유혹에 빠지기 쉬운 현실 속에서 성도들(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휴식방법 모색에 관심을 기울이며 바르게 인도하도록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터지는 전도의 열

이 연 호 전도사
 <중등부 지도>

- 「빛의 사자들이 되라. (사 60:1)」이 말씀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며...□
 □...복음의 기치를 든 사명자들에게 분연의 힘을...□
 □...주는 천래의 음성이니 것이다. ...□
 □...이와같은 주제 하에 제 5회 중·고등부 동기...□
 □...신앙부흥회를 1975년 2월 26일부터 3일간 본...□
 □...교회 본당에서 옥한흠 목사님(성도교회 부목...□
 □...사)을 모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이 성회를 계기로 중·고등부가 날로 부흥해...□
 □...가고 있음을 볼 때 주님의 축복인줄 알아 감...□
 □...사하게 된다.□

집회내용은 저녁부흥회·후집회·철야기도회·성화감상(역풍)·노방전도 등이며 특히 철야기도회에서 학생들은 많은 은혜의 체험을 하였고 분연히 복음을 들고 나가야겠다는 결심의 계기가 되어진 줄 안다. 주제 찬송「빛의 사자들이여」(새 621)를 통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게 하였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인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강사님의 강하고도 호소력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전도하지 않고 나태하였던 학생들의 마음을 사정 없이 깨뜨리었다.

또 「부름 받아 나신 이름 어떤지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는 찬송을 몇번씩 부르는 동안에 어린 학생들의 눈에는 통회와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가? 주여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이것은 진정 우리 중·고등학생이 부르짖던 음성이었던 것이다. 이 집회를 계기로 중등부에서는 1975년도 기도의 총제목을 「800 되게 하옵소서」로 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자」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일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분연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중등부에서는 실천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중등부 전회원이 인도 대상자를 한명씩 정하여 놓고 이를 위하여 기도운동을 벌인다. 그리하여 주·토요일 집회에 후집회를 갖기로 하고 인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한다.

둘째 학년·반별로 인도자와 인도 대상자를 한순으로 볼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중등부 예배실에 붙여놓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학생은 응답표시를 해준다.

세째 학년별·반별 배가운동을 하되 우수반에는 시상하고 전도와 배가운동에 적극 지원하고 편려회·반장회·조장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총진군한다.

네째 지도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전도의 사급성과 중·고등부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실교로 계속 격려한 것을 골자로 하고 우리 중등부 회원 한사람 한사람은 이 놀라운 주님의 부름에 호응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바라기는 이 운동으로 인하여 중·고등부가 크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전교회가 벌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운동」에 기여하는 바 크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중·고등부의 부흥집회 참석자수가 작년에 비해 볼 때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과 성화(聖書)가 학생들에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는 점이다.

<중·고등부 동기부흥회 집회현황>

구 분		비 교	75년도	74년도	증 감	일평균
학	26일	중	216	155	+140	500
		고	232	153		
	27일	중	275	175	+209	
		고	294	185		
28일	중	214	161	+153		
	고	271	171			
교 사	26일	중	23	41	33	
		고	18			
	27일	중	15	30		
		고	15			
	28일	중	15	29		
		고	14			

		철야기도회 (2/28)		노방전도 (3/1)	
학 생	중	63	167	70	134
	고	104		64	
교 사	중	8	15	4	7
	고	7		3	

□ 제 3과 / 제 3계명

□ 성경 / 출 20 : 7

□ 찬송 / 새 33장

제 3 계명은 두 부분 즉 부정적인 교훈과 긍정적인 교훈으로 되어 있다. 부정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긍정적 교훈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 주기도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를 뜻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인가?

1.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경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 28 : 58)
2.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이다. (대 1 : 16; 롬 2 : 24).
3.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부르는 것을 말한다.
4.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이다. (사 29 : 13; 잠 23 : 26).
5.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이다. (요일 5 : 10; 롬 10 : 14).
6.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귀절을 남용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이다.
7.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이다. (마 5 : 34).
8.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이다. (삼하 17 : 7 ※ 압살롬은 그의 반역을 숨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
9. 화가 난다고 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이다.
10. 헛 맹세 또는 불법적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이다. (사사기 11 : 31 ※ 입다는 그의 불법적 맹세 때문에 그의 무남독녀를 죽게 했다.)
11.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것이다. (민 21 : 5).
12.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한다.

□ 제 4과 / 제 4계명

□ 성경 / 출 20 : 8-11

□ 찬송 / 새 70장 (합 50장)

안식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작정된 날이다. 그런데 본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기억을 강조한 것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잊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을 뿐 아니라 ② 하나님께서 그 날에 쉬셨으며 ③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날을 축복하셨고 ④ 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⑤ 의학적으로도 옛세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구역공과

◇ 4월 공과 ◇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쉬게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교인들처럼) 주일을 지키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막 2 : 28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에도 주인」임으로, 날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주일에 부활하신 것이다. 둘째는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기 때문이다. (행 20 : 17; 고전 16 : 2) 세째는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키왔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정적인 면에서, 둘째는 적극적인 면에서.

1. 부정적인 면에서

주일에는 일을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지장이 되는 모든 세속적 일들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즉 ㉠ 육신의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일은 무방하다. 예를 들면 추운방에 불을 때는 것과, 밥을 짓는 일이다. ㉡ 선한 일, 말하자면 이웃을 구제할 다든지 아니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하는 등등의 일은 해도 무방하다.

2. 적극적인 면에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지킨다는 소극적인 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주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임금님의 방문을 앞두고 준비하듯,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② 사 58 : 13의 말씀과 같이 오락을 금하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그렇게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③ 말씀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요 17 : 17) ④ 명상을 하며 (다음의 네 가지를 명상하는 게 좋다. 즉 하나님의 창조, 그의 거룩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장차 받을 천국에서의 영광) ⑤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단장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 58 : 14). ①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② 땅의 높은 곳 즉 명예와 영광을 얻으며 ③ 야곱의 기업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

□ 이 구역공과는 매월 계속하여 실시될 것이다.

■ 사무장으로 10명 더 세우기로

해마다 급속히 확장되는 교회 산하 각 지회의 사업규모에 비해 절대 부족한 사무장으로(현재 25명)의 수를 고려하여 당회는 지난 2월 25일 금년에 사무장으로 10명을 더 세우기로 하고 오는 봄 노회에 청원하기로 하였다. 노회에서 허락된다면 오는 5월중에 선출하게 되리라고 한다.

■ 성령폭발의 도화선—특별집회

대학·청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주일 오후 3시 『특별집회』가 부활주일인 3월 30일을 기해 시작되었다.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운동(삼상 7:3-14)처럼 우리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성령폭발의 도화선이 되고 나아가 우리민족의 사활을 가름케 될 이 『특별집회』에는 당회장 및 대학부·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며 부흥회적인 집회형식을 취하여 모든 교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건축 특별헌금 실시키로

집회장소의 협소로 각 기관이 제 기능 발휘는 고사하고 슬로차 크게 설 수 없는 현재의 우리교회 실정은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급박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전건축 기금조성을 위해 5천만 원을 목표로 오는 4월중 실행하기로 한 교회의 뜻을 좇아 성전건축에 온 성도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새신자 환영 매주 예배 후에

2개월에 한번씩 모이던 새신자 환영예배가 금년부터는 매주 I·II·III부 각 예배 후에 새신자부신(구 지하식당)에서 모이고 있다. 구역 담당과 함께 한 이 자리에서는 새신자들에게 우리교회의 예배(집회)·조직·시설물 등에 대한 안내와 초신자가 갖추어야 할 교회생활 일반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후 각자의 연령에 해

당한 작부로 배치, 성경공부를 하도록 하며 계속하여 각 담당구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 권사회의 태동

교회부흥에 앞장서 심방·안내·교회내 봉사(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권사회』가 조직되리라고 한다.

3월 30일 취지문이 권사들에게 발송되고, 4월 1일 간담회, 4월 7~9일 준비기도회를 마친 후 4월 13일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우리교회 당회 산하 기관은 현재 16개에서 17개 지회로 늘게 될 것이다.

□ 춘기 대심방 시작되다.

3월, 9월 2차에 걸쳐 실시키로 된 심방계획에 따라 금년도 춘기 대심방이 지난 3월 11일부터 각 구역별로 일제히 시작되었다.

성도의 신앙격려·생활지도·문제상담·현황파악 등을 목적으로 동·서·남·북 4구의 1,900여 세대를 심방하게 될 이번 대심방은 6월말까지 계속되리라고 한다.

□ 부활절 음악예배

부활주일인 오늘 저녁은 성가부 주최로 부활절 축하음악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를 위하여 제일성가대와 여성성가대는 오래 전부터 연습을 하여 왔는데 제일성가대는 김정일 선생의 지휘로 김두원 곡인 〈승리의 그 리스도〉라는 칸타타를, 여성성가대는 홍익훈 집사의 지휘로 〈너는 거기 있었느냐〉, 〈부활하신 날〉,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 〈위대하신 주〉 등의 여러곡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 해외서도 선교헌금

교국을 떠나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총현의 성도들도 해외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선교헌금을 보내왔다. 지난 1월 19일 노이삼 집사가 48,120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김정일 집사가 50,000원, 시카고교회 한국인들이 57,700원을 선교회 앞으로 보내왔다.

□ 헌혈 실시예정

우리교회는 오는 4월 13일 200명을 목표로 헌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헌혈에 젊고 건강한 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교인이 예치한 이 피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는 우리교인이

언제고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 통일총교회 사택 건립키로

여전도회 지교회인 통일총교회 사택이 없어 그간 지도교역자가 많은 불편을 느끼어 왔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부속건물 8평을 포함한 22평의 사택을 건립키로 하였다.

3월 24일에 착공되어 4월 말경에 완공되리라 하는데 200만원의 예산중 50만원은 여전도회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 주교생들 앞서 선교회 가입

「너희는 보내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주일학교 각부의 학생들은 앞서서 선교회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가입한 주교 각부별 현황을 보면 유년부 31명, 초등부 56명, 중등부 277명, 고등부 명 등이며 일반교인은 942명에 이르고 있다.

□ 일본선교 시련에 봉착

3월중, 일본국 선교사로 파송될 예정이던 홍종만 선교사는 입국절차가 순조롭지 않아 당분간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결과가 되도록 모든 성도가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홍 선교사는 입국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전도부와 새신자부 일을 돕게 되리라 한다.

□ 특별봉사대 조직

남전도회 예전부는 회원들을 위한 이색 「특별봉사대」를 조직하였다는 소식이다.

즉 이제까지는 회원가정의 상가(喪家)에 약소한 조의금 전달로 끝났으나 이보다 더욱 따뜻한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슬픔을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며 할 수 있는 한 장례의 모든 일을 돕기로 하고 이 일을 전담할 봉사대원을 모집하였는데 처음 15명의 이상을 넘어 현재 22명이 봉사대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 신학장학생 3명 선발

천국일꾼 양성의 하나로 우리 교회가 지급하여 온 신학장학생으로 올해 새로이 총회신학원에 입학한 이준교 집사·김중석·안석렬씨 등 3명을 선발하였다. 전부터 장학금을 받아 온 이승근(유년부 지도)·

김일동(고등부 부지도)전도사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신학장학생은 모두 5명이다.

■ 춘기 세례자 모두 140 명

봄과 가을 등 일년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성례식이 「예수님의 혼적을 갖자/갈 6:17」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1일(금) 오후 7시 유치부실에서 실시되었다.

3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분담에 응한 사람은 모두 350명(유아세례-35, 입교-7, 학습-174, 세례-140, 개종-1)이었다.

한편 23일 주일예배 때에 있었던 그 성찬예식에 참가한 수찬자 수는 모두 2,424명이었다.

□ 빛의 사자들이 되라.

구원의 확신과 전도인의 직무를 고취시켜 학원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5회 중·고 동기신앙부흥회가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저녁마다 실시되었다.

「빛의 사자들이 되라/사 60:1」를 주제로 실시된 이번 집회는 저녁부흥회를 주축하여 후집회·철야기도회·노방전도·영화감상 등을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며 일평균 학생 500명, 교사 33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지도자양성부 제7기 수료식

지난 해 10월에 개강한 성경학원 지도자양성부 제7기생 32명의 수료식이 오는 4월 6일 저녁예배 시간에 분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어서 제8기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4월중 개강할 이 8기에 많은 성도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한다. 또한 성경학원에는 현재 학습반 50명과 연구반 12명이 수강중이라고 한다.

□ 청년부 춘계기도회 계획

청년부는 오는 4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오전 9시까지 삼각산 임마누엘 수도원에서 정기 춘계기도회를 갖는다고 한다.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회원 모두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학부형 초청간담회

「내일을 위해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 27일(목) 영아부에서는 30여명의 학부모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금년에 신설된 부서담지 않게 의욕적이고도 알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아부는 이날 모임에서 현재의 영아부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문제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간의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 영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

지난 3월 13일 3-4세의 영아부 아기들의 「주기도문 암송대회」가 65명의 학생·학부모·교사가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는 어린아기가 귀여운 입을 열어 주기도문을 암기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개나리반의 이성권 아기와 해바라기반의 박상현 아기가 각각 1등을 하였다.

□ 십계명 암송대회

유치부 어린이들의 「십계명 암송대회」가 지난 3월 2일 오후 유치부실에서 열렸다. 92명의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모인 이날 대회에서 영예의 1등은 열매 4반의 김영진 어린이가 차지했다.

□ 유·초등부 심방보고대회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실시된 유·초등부 일제심방결과 보고대회가 유년부는 3월 9일 오전 각 과별로 45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실시하고 초등부는 3월 16일 오전 40여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전과 같이 교사들의 뜨거운 체험적인 간증이 있었는데 이번 심방을 통해 어린이와 교사가 서로 이해하며 친근해 질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보겠다.

□ 교육연구위원회 활발한 움직임 보여

주교 교육의 현안문제 해결과 방향제시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조직된 교육연구위원회는 그간 4차례 걸친 모임을 갖고 여러가지 문제를 연구 발표하였다.

이 연구위원회는 앞으로 교육현황분석·교육방향제시·교육내용의 연구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리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기대된다.

□ 주교 II부서기 바뀌어

1973년 3월부터 주일학교 II부서기로 수고하던 이대길 선생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정경주 선생이 왔다. 최와 슬하에 딸 둘을 둔 정선생은 앞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단다.

□ 사론중창단 첫발표회

지난 3월 15일 오후 우리교회에서 대학부 선교 중창단인 사론중창단의 첫번째 발표회가 있었다. 250여명의 박수 속에 가진 이날의 모임에서 모금된 돈은 모두 중부시립병원 전도기금으로 사용되리라 고 한다.

□ 토막 소식 □ □ □ □

◇ 시교구역 구역장으로 오진국 집사 사임, 최무길 집사 보선되다.

◇ 장년부는 4월 13일 축조전도를 나가는데 여러 교우들의 협력을 바란다.

◇ 땅끝까지회는 매주 오후 6시 15분부터 선교회 사무실에서 선교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를 바란다 고 한다.

◇ 중등부는 3월 30일 성경읽기의 권장방법으로 실시해 온 성경읽기에 대한 시상식을 하는데 1등에는 지난 3개월 동안 629장을 읽은 김혜령이란다.

◇ 중등부는 3월 23일 저녁예배를 헌신예배로 드렸다. 강사는 이종영 목사이었고 제목은 「자랑스러운 성당」이었다.

◇ 성경학원 도서실에서는 성도여러분의 많은 열람을 바란다고 한다.

◇ 고등부는 지난 3월 9일 오후 대예배실에서 마태복음 전장을 암송하는 성경암송대회를 열었는데 천인범군이 전체 1등을 하였다고 한다.

◇ 대학부는 오는 4월 5일 한영중·고교 교정에서 회원간의 친목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를 연다고 한다.

◇ 청년부는 지난 3월 16일 오후 경기도 시흥에 있는 광복교회로 35명의 회원이 전도를 나가 30여명의 결신자를 얻었다고 한다.

◇ 청년부는 성경읽기운동의 하나로 실시해 온 「매일성경」 읽기에 대한 시상식을 3월 30일 갖는다고 하는데 완독한 사람은 김승곤 회원의 18명이나 되는데 이들 모두에게 시상상을 하리라고 한다.

◇ 3월 30일부터 실시되는 오후 특별집회로 청년부 집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계속되도록 시간표가 바뀌었다.

기자석

○...편지실 창 밖으로 겨우내 얼었던 땅을 녹이는 봄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가만히 내리는 비를 보고 있으려니 이제는 정말 봄이 오나보다 하는 생각과 함께, 답답하게 주위를 조여왔던 겨울을 벗어버리고 훌га분해지고 싶다는 기분이 든다.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이 항상 즐거분하고 산뜻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라면 주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말쑥에 접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 봄을 설계하며 인생을 설계할 때 좀 더 자유롭게 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결코 자신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닐까 할 때, 그 은사를 값 없이 받은자로써, 주신 개별적 능력을 발휘하여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불 배는 자의 특권이 아닐까?

○...이 봄에는 우리 천령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크고 적은 교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와 열성을 갖기를 빠폰이다.

(영)

○...봄이다.

산들 산들 부는 감미로운 봄 바람에 머리카락이 가벼이 흩날리듯 우리의 마음도 세상 바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 살짜기 자기 합리화의 길로 갈까 보아 두렵다.

○...각부 집회는 물론 오후 특별집회와 수요일 집회에 좀더 능동적인 태도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판단으로 비어 있는 마음이 채워지듯 성령충만으로 차고 넘치기를 두손모아 기도 한다. <재>

○...『아멘!』 소리 좀 크게 합시다.

기도후 『아멘』 소리를 그대로 끝까지 삼키지 말고 크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3월 제직회 때의 당회장 목사님의 배 있는 말씀,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앞으로 기도할 때 정신이 번쩍 나도록 크게 외칩시다. 『아멘!』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니 앞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분은 『의모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생각 좀 해 주시구로. 젊음의 패기에 걸드린 어른에 대한 공손한 예의는 +A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푸른 잔디는 고사하고 큰 나무 한그루 심을 수 없는 우리 교회 앞뜰에 콩크리트 보도 불럭만 바둑판처럼 총총. 봄내음은 말할 수 없다 해도 간이 화분대라도 요소요소애 놓아 아름다운 꽃씨를 심는다면 그런 대로 올 여름은 꽃향기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표>

편집하고 나서

춘분

○... 지나 만월 후 첫번째 맞는 일요일, 곧 부활주일이다. 변함없이 찾아오는 절후로서의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아무 감흥없이 맞는 젊은이들의 생일(生日)처럼 말이다.

부활절을 계기로 특별집회를 갖는다. 이 특별집회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온 교회에 퍼지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 이번 호에는 귀한 원고를 두 편 얻었다. 임옥인 교수님의 글과 윤영탁 전도사님의 글이다. 지난번 교사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감동을 준 임교수님의 글은 신선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하여 부활절의 의미를 한층 부각시켜 주고 있다. 또 윤전도사님의 「구약에 나타난 부활 사상」은 신학상에 있어서도 논쟁이 되는 문제로 지면상 충분히 다루지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한다. 이 귀한 글을 독자에게 꼭 일독을 권한다.

(형수)

○ 교회가 하나됨을 누가 마다하랴. 그러나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야만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뜻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좁은 소견의 웅고집이라고 몰아붙인다고 말할 못하고 영겨주춤한 필요는 없다. 우리의 주장이 확실히 성경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고, 우리의 주체가

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번호에는 집착생 집사의 「WCC적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글을 실어 보았다. <표>

서울 및 지방교회에 알림

지난 1월호부터 배포된 「충현」지를 받아 보신 서울 및 지방의 각 교회는 「충현」지를 잘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제엽서에 써서 「충현 편집실」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말까지 연락이 없는 교회는 주소가 틀리거나 「충현」지를 앞으로 계속 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5월호부터 배포를 중단하겠습니다.

수신처 주소와 수신인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 3월 30일

「충현」편집위원장 위 영 환

표지 설명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노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 28:1-10)